

3장. 글과 국가

글

-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 국가의 지원 없이 — 고대의 어느 곳에서도 글쓰기의 활성화 불가
 - 서기관 출현
 - 행정과 고급문화 발전에 중추적 역할
 - 왕실의 힘과 권위 과시에 필수

글의 용도

- 경제 활동 촉진
 - 생산품 식별
 - 종류와 양 기록
 - 지식 축적
 - 기원전 3000년대 메소포타미아에서 사용
 - 장부 기록 — 도시국가에서, 행정적·경제적 필요에 의해 처음 사용
 - 서기관들 — 상거래 기록, 점토판에 숫자와 그림부호 사용
 - 그러다가 점차 융통성을 더해 감
 - 하늘(발은은 '안') — 설형문자 기호
 - 기호
 - 처음엔 별처럼
 - 점차 기호화
 - 수메르어 — 아카드어 : 하늘의 신 '아누' 상징
 - 그러다, 기호들을 '음절'로 쓰기 시작
 - 별 기호 → 일(il) 또는 엘(el) : 고대 메소포타미아 근방의 주신 이름
 - 설형 문자체계는 점차
 - 추상 개념이나 복잡한 생각까지 표현 가능해짐
 - 설형문자 체계 = 상당히 복잡
 - 600여개의 기호 사용 — 복수 표기, 단어, 단순 음절 등
 - 이집트 상형문자 — 몇백개 기호 사용
 - 이집트 — 20개 알파벳 기회도 사용
 - 애초, 외국 인명표기 목적으로 사용
 - 그래서, 전문 서기관이 필요 (70쪽)
 - 소수의 엘리트와 왕들만 글을 사용
 - 서기관 훈련 — 강도가 상당
 - 더구나, 글을 쓰는데 많은 비용이 발생 (70쪽)
 - 지배계층의 지원을 받은 엘리트 계층이 글 독점
 - > 정보 위주, 문학적인 글은 없었다 (71쪽)
 - 구 바빌로니아 시대(BCE 2000~1600년)에 이르러서야
 - 서기관 교육기관에서 문학작품이 대량 편찬 (71쪽)
 - 주요 문학작품집 실제 연대
 - 앗시리아에서 도서관이 만들어진 시기 = BCE 1000 이후
 - 아슈르바니팔 왕의 도서관 (BCE 650년경)
 - 제의, 신화, 수학, 천문학 및 문학전승 수집
 - 그러나, 대개는 — 행정상의 용도에 머물러
 - 왕실과 성전의 기록보존 목적이 대부분
 - 대부분 왕관 과시용으로 글 사용 (71쪽)
 - 공공 기념물에 글로 장식
 - 글을 모르는 백성들을 위해, 대강의 내용을 그림으로 추가 설명
 - 예) 함무라비 법전 (BCE 1750년경)
 - 신이 왕에게 법전을 선사하는 그림 그려넣음
 - 알파벳의 발명

일반적으로는 — 글은 대체로 말과 관련지어 분석

↳ 그러나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

↳ 초기 신성문자, 설형문자

↳ 단순히 기억을 돕는 도구

↳ 구어와 별개인 독립된 기호문자 체계 (72쪽)

❶ '알파벳의 발명'에 따라...

↳ 말과 서로 보조를 맞춤 (72쪽)

↳ 이는 문자문화의 확산에도 용이해짐

↳ 글의 대중화에 기여

↳ 서기관을 넘어 일반 대중까지로

↳ 이는 — 글의 신비감을 감소

↳ 알파벳으로 처음 쓴 것이 낙서~~~!!!

↳ 그러나,

↳ 서기관을 넘어 일반 대중화까지는 1000년 이상 걸림

↳ 사회에서 글의 쓰임이 한정적 (72쪽)

↳ 이집트 동부 — 와디엘홀

↳ 기원전 1000년대 후반 기록으로 추정

↳ 알파벳 기원은 그보다 훨씬 앞섬

↳ 외국 인명 표기에 사용 (자음을 나타내는 기호로 수세기간 사용) (73쪽)

↳ 가나안과 시내 반도

↳ 기원전 15-16세기 — 서부 셈어족 유족

↳ 초기 알파벳 문자의 증거 나옴

↳ 세라비엘카뎀 지역의 돌 위에 새긴 45개의 원시 시내 비문 발견

↳ 와디엘홀의 알파벳과 유사한 단순화된 알파벳 체계

↳ 현무암 석비 "Ib'lt(여주인께)"

↳ 게셀, 라기스, 세겜

↳ 기원전 1000년대 초반의 것 — 알파벳 발견 (74쪽)

↳ 두음서법에 따라 명명 (최초)

↳ 초기 알파벳은 모든 음소를 그에 상응하는 문자로 나타내려는 시도에서 만들어짐 (74쪽)

↳ 물론, 점차 단순화 및 변형되어감

❷ 우가리트

↳ 기원전 1000년대 후반, 우가리트 도시 — 알파벳이 처음으로 널리 사용 (74쪽)

↳ 우가리트어 = 30개의 설형문자로 된 언어

↳ 대부분의 글이 이 고대도시에서 발견

↳ 점토판에는 — 다른 도시에서 보내온 편지들도 있음 (74쪽)

↳ → 다른 도시에서도 이 문자체계가 사용되었음을 방증

↳ 가나안의 여러도시 — 설형문자 알파벳이 세겨진 점토판 출토 (74쪽)

↳ 기원전 1000년대 초반, 시리아-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널리 쓰임

↳ 우가리트 문자 — 3개의 모음(a, i, u)가 있음 (74쪽)

↳ 발견글들 — 대개, 서기관과 관련되어 있음 (서기관들의 전유물이었음)

↳ 종교, 경제, 외교, 행정에 관한 글이 대부분

❸ 아카드어 계통의 '특수' 방언 (75쪽)

↳ 서기관들

↳ 고대 근동 국가 — 없어서는 안될 존재들 (75쪽)

↳ 작고 초라한 국가일지라도 — 서기관은 있었음

↳ 1) 가나안 — 기원전 1000년대 후반 (후기 청동기시대)

↳ 작고 불품없는 도시국가들로 이루어짐

↳ "아르마나 서한"

↳ 대부분 — 가나안에서 이집트로 보낸 설형문자로 된 문서들

↳ 이집트의 관할권내에 있었음

- ↳ 사사건건 이집트의 지원을 바라곤 했음
 - ↳ 서기관들이 이러한 목적에 의해 행정, 서신 작성에 관여
 - ↳ 당시 시리아-팔레스타인 전역의 서기관 — 아카드어 계통의 '특수' 방언으로 씌어 (75쪽)
- ↳ 성전 서기관들
 - ↳ 지출내역 및 성전 예배문을 기록 했을 것
 - ↳ 아주 적은 숫자의 서기관들
 - ↳ 광범위한 문서 저작은 어려웠을 것
 - ↳ 글 = 행정을 돕는 목적 → 문학까지는 아직
- 2) 모압 (사해 동쪽 고원지대 — 이스라엘 관할) (76쪽)
 - ↳ 초기 철기시대 왕국 — 유목·농경사회
 - ↳ 모압 왕 '메사'
 - ↳ 이스라엘 간섭을 몰아낸 후
 - ↳ 승리 기념 비문 세김 — 30줄이 넘는 문장
 - ↳ ① 작은 신생국가도 서기관은 둬 — 비문 세김 (77쪽)
 - ↳ 왕의 위신을 세우고, 승전을 기념
 - ↳ 서기관이 국가간 경계 및 행정 기록 담당

4 아람어 방언

- ↳ 텔 단 석비 (77쪽 ~)
 - ↳ 기원전 9세기 후반 — 다윗의 집 석비 (77쪽)
 - ↳ 다메섹을 다스리던 '아람 왕 하시엘'이 이 도시 단을 점령하고 세운 것
 - ↳ 성의 입구에 세워 모든 백성이 볼 수 있게
 - ↳ 아람 왕 — 고대 이스라엘의 두 왕국(북이스라엘과 남유다-다윗의집)에게 이긴 내용 기록 (79쪽)
 - ↳ 기원전 841년 사건
 - ↳ 이스라엘 장군 예후의 반란과 같은 시기
 - ↳ 성경 (왕상 19:15-18)
 - ↳ 예후는 두 왕의 살해에 연루
 - ↳ 아람 왕 하시엘과 손잡고 반란을 일으킴
- ↳ 아람어 방언으로 기록 (79쪽)
 - ↳ 단, 그 언어나 문체는 타 비문과 비슷
 - ↳ 모압의 석비, 베니게(페니키아) 비문과 유사
 - ↳ 고대의 글은 지역에 큰 차이 없었음
 - ↳ 서기관들이 여러 지역의 방언을 익혀 '통일 시켰음' (80쪽)
 - ↳ 서기관들의 — 가나안 전역에서 사용하는 언어에 대한 훈련 결과로 보임
 - ↳ 왕의 위세 과시, 외교에서 사용
 - ↳ 기원전 8세기경에서야 언어적 구분 사용 — 제각각의 알파벳 형성
- ↳ 초기 이스라엘
 - ↳ 아주 작은 왕국 — 그러나 서기관이 필요했었을 것. 마치 공작새나 원숭이와 같이
 - ↳ 왕권 상징
- ↳ 서기관의 중요성 증거
 - ↳ 보좌에 앉은 바르라키브 왕 앞의 서기관 (80쪽)
 - ↳ 북부 시리아의 작은 왕국
 - ↳ 부조 윗부분의 글귀
 - ↳ "나의 주, 하란의 바알. 나는 바르라키브, 파나무와의 아들이다."
 - ↳ 하란의 지역신께 바친 비문
 - ↳ 앗시리아의 특징 — 연꽃, 머리장식, 수염 등
- ↳ 국력 과시를 위한 글
 - ↳ 앗시리아 — 정치·행정상의 필요에 따라 외국어인 아람어를 사용 시작 (82쪽)
 - ↳ 다양한 말 쓰는 사람들 → 아람어만 쓰게
 - ↳ 자신의 언어인 아카드어(복잡하고 어려운) 대신 → 쉽고 편리한 '아람어'를 사용
 - ↳ 글의 확산을 촉진시킴

㉞ (아카드어), 우가리트의 글

㉞ 우가리트 도시 — 기원전 1000년대 중반 ~ 1200년경 멸망

초기 이스라엘과의 비교 연구에 유용

지중해 동부연안의 북부 위치, 작은 왕국의 정치적 중심지 (83쪽)

지정학적으로 수출과 수입에 의존 (국제적 항구)

북, 동, 서쪽 모두 산으로 둘러싸임

북동쪽 = 메소포타미아 큰 왕국들로 이어지는 통로

해당 평지 — 매우 비옥

밀과 보리 생산 많음

주변 구릉지대 포도원과 감람원 경작

산지는 레바논 백향나무 생산

많은 점토판 발굴 — 다양한 문자, 언어 사용

다양한 문자 — 설형문자, 이를 사용한 알파벳, 신성문자

다양한 언어 — 우가리트어, 아카드어, 수메르어, 후르라이어, 히타이드어, 이집트어, 키프로스-미노아어

주요 언어는 — 아카드어와 우가리트어 사용 (94쪽)

설형문자, 신성문자 사용

메소포타미아, 이집트와 밀접한 관계

설형문자 알파벳 — 우가리트만의 독특한 것

자체 발명품으로 보임 — 30개의 설형문자 사용

점토판 중 문학적인 글(신화), 행정업무, 경제 활동에 관한 글, 서신, 교육기과 사용 글(어휘목록, 음절목록, 연습본) 등이 있다

대부분 — 경제와 행정에 관한 글

바알신화집

성전 서기관이 베껴 쓴 것

중요 신화의 상당수

기원전 14세기 중반 — '일리밀쿠' 라는 서기관이 쓰거나 편집

레반트의 문화유산이 됨

서기관

상당한 지위, 폭넓은 교육 받음 (85쪽)

단, 저자는 아니었음

전승과 문학의 관리자였음 (85쪽)

우가리트어 = 성경의 히브리어와 매우 비슷 — 중요 !!! (85쪽)

성경의 시 연구 — 특히 우가리트 문헌이 도움이 됨

대구법 등

움베르토 카수토(문헌연구자) — "성경이 이전부터 있었던 가나안의 문학양식을 계승했다"고 주장 (85쪽)

이스라엘 서기관 — 시리아-팔레스타인 전역의 언어 및 문화 습득(서기관 전통을 유지) 암시

조셉 나베(고문서 학자)

서부 셈어 알파벳(페니키아어, 아람어, 히브리어)은

기원전 10세기경 거의 구분이 어려웠다고 주장 (86쪽)

→ 레반트 지역의 유사한 서기관 교육기관에서 교육 받은 것으로...

고대 우가리트어

1) 국가와 국가 기반의 경제가 글의 번성에 매우 중요하게 작용

2) 우가리트 시와 이스라엘 시의 친연성은

고대 이스라엘이 기원전 1000년대 끝무렵(후기 청동기 시대)

도시국가들의 멸망 후에도 면면히 이어진

매우 큰 규모의 문화에 속했었다는 것 방증 (86쪽)

→ 이스라엘의 구두 전승과 서기관 전승은

고대 가나안의 풍성한 유산으로부터 비롯된 것